

이상철 목사님의 자서전적 저서, “열린세계를 향한 나그네” 를 읽고

오늘 이렇게 귀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게 된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머리말을 통해서 심류 이상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십니다. “블라디 보스톡에서 토론토까지 멀리도 굴러왔구나, 살아남은 것이 신기하다. 내가 80 이 넘어 90 을 바라보며 살다니. 죽을 뻔한 일이 한두번이 아닌데 하고 이야기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저자 스스로가 신기한듯 이야기 하는 내용입니다. 이 네마디 이야기는 험난한 한 삶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이어지면서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채워나가는것은 진정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고백으로 결론 짓습니다.

첫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당의 지시로 부엌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아이가 뜻도 모르고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 교회적인 선언을 합니다. “다시는 예배당에 가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이런 어린 소년이 캐나다까지 굴러오면서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급기야는 연합교회의 총회장, 교육의 최고봉인 빅토리아 대학의 찬슬러가 됩니다. 이런일은 실로 신화같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동하게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과정에서 극진한 아버지의 사랑이 종교의식으로 이어지고생명이 살아 숨쉬는 작은씨앗으로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양육되는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세계를 사랑하고 그 세계를 열린 가슴으로 살아갈수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은 어린 아이 부엌돌이의 가슴에 심어지고 뿌리내린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로 많은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만주국, 한국, 스위스를 거쳐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열린 나그네로 살아온 한사람의 파란 만장한 일대기를 읽으면서 저는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토론토까지 라는 부제는 단순한 지역적인 이동경로를 이야기 하는것도 아니고 시간을 따라 변천한 정치 사회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읽게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 하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생명을 갈구하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안에서 한 나그네가 세상과 부딪치고, 불의의 세력을 대적하고, 목숨을 건 험난한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그네의 새로운 의미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그네는 잘닦여진 길을 찾아서 여행을 한 방랑자가 아닙니다. 부서진 길을 고치고 없는 길을 뚫고 구부러진 길을 펴는 삶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합니다 . 나그네 심류 이상철 목사님이그의 생애를 살아오시는 동안그의 삶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물음을 우리는 듣습니다. “내가 어디에 길을 닦아야 합니까?” 이러한 물음에 그가 삶을 통해 보여주는 대답은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답과 일치하면서 짜릿한 전율을 느낍니다.

그의 대답은 어두움가운데 빛이 비치고 험한 길을 평평한 길로 보수하며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선각자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자의 삶이라고 이야기 하며 모든 진리를 사모하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동경하는 진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지금도끊임없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길을 닦아야 합니까?” 하는 물음을 묻는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

이 목사님의 삶을 읽어나가면서 **열린 세계를 가진 나그네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두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이 나그네의 삶을 조명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라는 구체적인 가르침은 주지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신의 나름대로의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길을 찾으라는 배려이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열린 세계를 가지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고, 힘없고 가난한 이웃과 심지어는 원수 까지도 가슴에 품어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그러나 인간의 착취에 신음하고 있는 대 자연에게 까지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것을 이 열린 마음의 나그네는 그의 삶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가? 이는 예수 님이 골고다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고백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수만 있거든 이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무응답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자발적인 고백을 기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을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러한 삶이 가장 가치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책의 중반부에 기록된, 이 나그네가 연합교회안에서 중책을 맡는 과정은 실로 마음을 비우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에게 열린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백적인 삶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목숨을 거는 일이 종종 있는것이 깊이 가려져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그네 심류 이상철 목사님은 그의 대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담대해 이야기 하십니다. **“큰 심장을 가지라.”** 다시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큰심장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겠는가? 하나님을 향해, 인간을 향해 자연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살때 **“내뜻대로 마옵시고 당진 뜻대로 이루어 지이다**”하는 고백을 삶으로 살때 우리는 큰 심장을 가지게 된다고 이 자그마한 나그네는 삶을 통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열린 세계를 바라볼수 있고 특대 심장을 가진 가슴에 세상의 모든것을 품을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열린세상은 없습니다. 내마음을 활짝열고 세상의닫힌 문을

녹일때 열린 세상을 향해 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 전통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마뎡을 열수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때에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길은 잘 포장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험난한 자갈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심류 이상철 목사님의 부르짖음을 이 책을 통해서 듯습니다. “내가 어디에 길을 닦아야 합니까?” “내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 지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바라봅니다. 이책을 읽으시는 분 모두가 이 부르짖음을 함께 들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같이 응답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증거하며 살아오신 이상철 목사님과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